상담학연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20, Vol. 21, No. 2, 147-169
https://doi.org/10.15703/kjc.21.2.202004.147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의 매개효과 및 연령대에 따른 다집단 분석*

백근영†

명지대학교 심리치료학과 조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학업 관련 어려움 중인 하나인 학업지연행동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그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라 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여 저연령집단(20, 30대)과 고연령집단(40대 이상)을 대상으로 모형의 적합도 및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총 189명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을 매개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에 따라 개별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저연령집단에서는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연령집단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과 학업지연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과 학업지연 행동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했다.

주요어 :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업지연행동,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 다집단분석

---

* 이 논문은 2019년 명지대학교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백근영 /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심리치료학과 조교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 Tel: 02-300-0977 / E-mail: kybaek@mju.ac.kr

서 론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란 교육부에서 2015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의 도입을 통해 신설된 별도의 단과대학으로,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재학생들은 전통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바로 진학하는 학령기 학습자들이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의 재직 경험을 지닌 성인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이경민, 김병주, 2017). 출산율 감소로 인한 대학의 학생 수급의 어려움 및 고령화로 인한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면서, 성인학습자를 대학의 학습자로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친화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다(손승남, 2015). 2017년부터 시작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5개의 대학에서 현재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재학생들을 돕는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학령기 학습자들보다 학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하오선, 2019). 예를 들어,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 중 약 36%가 학업중단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하오선, 2019), 학업에 대한 동기가 낮고, 학습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학업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오선, 김수영, 2018).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 인한 시간 부족 등의 ‘상황적 요인’, 일반 학령기 대상 학생 중심의 학사운영에 대한 대학의 ‘기관적 요인’, 그리고 학습에 대한 두려움 및 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이현경, 이지연, 2017). 이에, 평생교육 단과대학에서는 학사운영의 유연화,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서 재학생들의 학업적 어려움을 도우려고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이들이 성인학습자로써 내재하고 있는 심리적 불안 등의 문제가 이들의 학업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창수(2017)의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학습자 특성, 조직 특성(재직 기업), 대학 특성이 학습 몰입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학습에 대한 가치, 효능감, 애착이 포함된 학습자 특성이 다른 특성들보다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오선(2019)의 연구에서도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생들의 학업중단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학습자가 학업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 지가 교수자의 강의나 학사운영보다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학업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학업적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학업적 어려움 중, 학업지연행동에 초점을 맞췄다. 학업지연행동이란 어떤 미루는 행동이 학업적인 영역에서 나타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Ferrari, 2001), 주관적인 불편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학업 관련 행동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Solomon & Rothblum, 1984). 학업지연행동을 보이는 학습자들은 학업에 관련된 활동을 시작하거나 끝내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으며(윤숙경, 1997), 그 과정에서 학습과정에서 죄의식과 수치심을 경험한다(서은희, 2007). 이는 낮은 성적, 학사경고 등 학업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 자기비난 등 심리적인 측면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urka & Yuen, 2008; Clariana et al., 2012). 성인학습자들에게도 학업지연 경향이 보고되고 있는데, 김현진(2013)의 연구에서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들 역시 토론 또는 출석에서 한번 이상 지연행동을 보인 비율이 전체의 4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진과 전종희(2014)에 따르면,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학습자들의 경우,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기에, 자기조절능력 또는 심리적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을 지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생들은 대부분이 재직상태(94.7%)로,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들의 34.3%가 재직자인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하오선, 김수영, 2019). 따라서 이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지연행동의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습자들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에 대해서는 30년이 넘게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실패공포(김현홍, 김진강, 2019; 한영숙, 2011), 완벽주의(김슬기, 박은영, 2018; 김현이, 송미경, 2018; 조이슬, 강영신, 2015), 자기조절능력(김종운, 양민정, 2013; 박해준, 안도희, 2018; 유지원, 2012), 충동성(윤채영, 이은화, 2017), 성취목표지향성(전보라, 정혜영, 윤소정, 2016), 정서조절양식(김슬기, 박은영, 2018; 이성민, 김정규, 2017)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완벽주의적 성격, 실패에 대한 공포 등 불안과 두려움에 관련된 변인들과 학업지연행동과의 관련성이 주로 확인되어 왔고 이는 불안과 연관된 심리적 변인이 학업지연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임을 의미한다. 최근, 불안과 두려움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 중,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Intolerance of uncertainty)과 학업지연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이영, 어윤경, 2018; Fourtounas & Thomas, 2016; Tongjie & Ping, 2018).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계없이 부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Dugas, Gosselin, & Ladouceur, 2001). 즉,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인지, 정서, 행동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Dugas, Buhr, & Ladouceur, 2004).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상태라기보다는 성격적인 특성으로(오영아, 정남운, 201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하며, 관련 사건에 대해 위협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떠올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김홍백, 김상태, 2016). 더욱이,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은 일반 학령기 학생들과는 달리,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와 비교했을 때, 학업은 상대적으로 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의 시간 및 자원을 투입하는 과정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김이영, 어윤경, 2018). 따라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 중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재학생들일수록 학습과 학업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지연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련성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행동특징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Fourtounas와 Thomas(2016)에 따르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특정 결정을 내릴 때, 정보를 더 탐색하고 회피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건강 관련 안내 책장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osen & Knauper, 2009), 회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erzner et al., 2013), 물건을 사고 저장해두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glesby et al., 2013). 즉, 불확실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지, 정서가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불확실함을 유발하는 사건이나 상황에서 결정을 미루고 회피하고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살피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업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시험, 과제 등 학업에 관련된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에 집중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거나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 실증적으로도, Fourtounas와 Thomas(2016)의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멈춘 것 같은 경험을 한 미국 대학생들은 학업적으로 지연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ongjie와 Ping(2018)의 연구에서 중국대학생들의 경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대처방식을 매개하여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문헌들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한 문헌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학업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문헌들이 있었다(김이영, 어윤경, 2018; 양도선, 이자영, 2016). 김이영과 어윤경(2018)에 따르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대학생들은 이들의 완벽주의적 성격수준에 관계없이, 학업에 몰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도선과 이자영(2016)의 연구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이버 대학생일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에서 학업몰입이란 학습하는 과정에서 몰입한 정도를 의미하며, 학업스트레스란 학업에서 수업내용, 학습 난이도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은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기에, 시험 또는 과제 등 학업적 상황에 대해 더 불확실하게 지각하거나 압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회피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학업 관련 활동들을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앞서 이야기했듯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 정서, 행동적 반응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격적인 측면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오영아, 정남운, 2011). 개인의 성격적인 측면은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직접적으로 상담 및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행동적 변인들 간의 사이에 매개하는 변인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왔다(이예지, 조한익, 2019; 장진이, 2016). 예를 들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진로에 관련된 문제에서 정서조절이 어렵고 회피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행동이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진이, 2016).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불완전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강박적인 확인 행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예지, 조한익, 2019).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분노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상현, 변상해, 2018).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정서조절의 어려움 및 부정적 정서상태를 유발하고, 이는 부적응적인 행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회피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조절양식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 중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다(신수진, 홍혜영, 201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로 인한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들을 수용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감정들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오영아, 정남운, 2011). 기존 연구들에서는 경험적 회피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제언하였고, 실증적인 연구들도 수행되어 왔다. 윤정미(2019)나 장진이(2016)의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경험적 회피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미루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경험적 회피란 내적 경험을 회피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성으로, 내적 사건을 기꺼이 경험하려는 경향과 원치 않은 내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오영아, 정남운, 2011). 즉, 경험적 회피란 자신이 경험하는 사고, 정서, 기억 등 모든 내적 경험을 회피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반응으로써 정서적 측면에만 국한해서 정의내리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김환과 이훈진(2007)에 따르면, 경험적 회피는 사람을 피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 등의 행동적 회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리두기, 감추기 등 정서를 처리하는 다른 회피적 방략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피적 정서처리 방략에 초점을 맞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일수록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고 이를 분산시키는 정서조절 양식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렇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고 분산시키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정서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장진이, 2016), 실제로 현재 당면한 학업에 관련된 중요 행동들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회불안에 관련된 경계-회피 모델(vigilance-avoidance model; Bögels & Mensell, 2004)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경계-회피 모델에 따르면,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위협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는 경계심이 높고 더 빨리 인식하며, 이러한 위협단서를 탐지했을 때 바로 시선을 회피한다. 이는 순간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지만, 실제 위협에 대해서 학습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오히려 불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학습활동 또는 시험준비 등 학업 관련 하여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학업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회피하고 분산시키는 정서적인 방략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요구되는 구체적인 학습량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정서를 회피하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시험을 잘 보지 못하거나 과제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안은 학업 관련 행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미루게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증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실수에 대한 염려와 자신의 수행에 대한 의심이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민, 김정규, 2017).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회피/분산적 정서조절방식을 통해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회피/분산적 정서조절방식, 학업지연행동의 관계가 연령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에서는 20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다. 정서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성인의 정서조절 양식은 연령에 따라 변화하며, 같은 정서조절 양식도 연령에 따라 개인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안미소, 김혜리, 2017; Charles, Reynolds, & Gatz, 2001; Doerwald et al., 2016; Labouvie-Vief, DeVoe, & Bulka, 1989). 이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학업지연 행동을 설명하는 심리적 기제도 연령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청년집단(20에서 30대)들과 비교했을 때, 40대 이상의 중, 노년집단은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Labouvie-Vief 등(1989)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집단(20에서 30대)들은 자신의 정서를 무시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40대 이상의 장년과 노년집단들은 자신의 정서 경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감정 동요를 대처하지 못하고 당황하거나 대처를 포기하는 성향은 청년기에 비해 40대 이상의 중년기에 그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유경, 민경환, 2005). 또한, 40대에서 64세의 중년이 되면, 청년들에 비해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덜 경험했으며, 이를 약화시키는 방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미소, 김혜리, 2017).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20에서 30대의 청년기에 비해 40대 이상의 장년과 노년기에는 정서를 회피하거나 분산시키지 않고 적절히 해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는 장년기(40대이상)과 노년기에 이르면, 회피, 억제 등과 같은 부적응적 정서조절 양식이 개인의 직업과 삶의 만족 등에 있어서 청년기와는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했다(Doerwald et al., 2016). 구체적으로, 회피와 같은 부정적 정서조절 양식이 중노년 집단의 경우 심리적 변인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이 존재한다. 김민희와 민경환(2004)에 따르면, 국내의 42에서 64세의 중장년들은 정서조절 양식 중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을 사용하는 수준이 20대의 청년들에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Brummer, Stopa와 Bucks(2014)의 연구에 따르면, 40대에서 60대사이의 중년기와 60세 이상의 노년기에 정서를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전략은 이들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과 학업지연행동간의 관계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시사된다. 구체적으로, 고연령집단(40대 이상)의 경우, 저연령집단(20에서 30대)와는 달리,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학업지연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선행연구에 따르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연령에 관계없이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Basevitz et al., 2008; Nuevo et al., 2007), 60세 이상의 노인들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정서적으로 통제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Shao et al., 2019). 이는 연령이 높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경우에도 윤정미(2019)나 장진이(2016)의 연구의 대학생들과 유사하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수준이 높을수록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의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연령에 관계없이 학업지연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및 필리핀의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불안과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de Guzman, Lacao, & Larracas, 2014; Nuevo et al., 2007). 또한, 불안이 높은 노인들일수록 부정적인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연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윤, 진영선, 장문선, 2015).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고연령집단의 경우, 저연령집단과 마찬가지로, 시험 등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미루거나 지연된 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20에서 30대의 청년기의 저연령집단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방식이 매개할 것으로 보았으며, 40대 이상의 중노년기의 고연령집단에서는 볼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직접적으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 목적 및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에 관련된 연구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지연행동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을 매개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했다(그림 1 참조). 이때, 연령에 따라서 변인들 간의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20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한데, 성인 정서조절 양식의 변화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라(안미소, 김혜리, 2017; Charles, Reynolds, & Gatz, 2001), 20에서 30대의 청년기(저연령집단)와 40세 이상의 중노년기(고연령집단) 연령집단으로 나누어서 각 집단에 따라 변인들 간의 관계가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20대에서 30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대학생들 관련 연구결과들과 유사하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을 매개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했다. 반면, 40대 이상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과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만 유의미하고,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직접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본 연구를 통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학업지연행동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학업적 어려움을 돕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성격적 특성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정서조절 방식인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학습상담 및 교육과정 개발에서 구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연령에 따라서 성격적 변인과 정서조절 변인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학생의 연령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을 매개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연령에 따라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개별 경로계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20에서 30대의 저연령집단에서는 연구 가설 1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반면, 40대 이상의 고연령집단에서는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고연령집단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 간의 관계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가 유의미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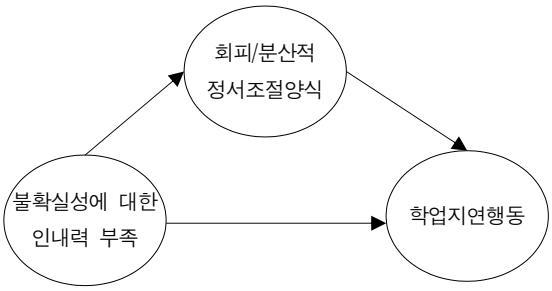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연구 목적을 소개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15개의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결과, 서울 소재의 3개의 대학과 경상남도 소재의 1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 측정도구들, 개인정보를 묻는 질문지를 포함한 온라인 링크를 재학생들에게 배포하여 참여를 독려하였다. 온라인 링크에 접속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은 총 316명이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127명을 제외한 189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 남성은 52명(27.5%), 여성은 137명(7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6.83세(20~69세, *SD*=13.40)였으며, 20대는 83명(43.9%), 30대는 25명(13.2%), 40대는 35명(18.5%), 50대는 38명(20.1%), 60대는 8명(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년은 1학년이 72명(381.%), 2학년이 53명(28.0%), 3학년이 44명(23.3%), 4학년이 20명(1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과는 인문 및 어문계열이 79명(41.8%), 사회과학 및 상경계열이 80명(42.3%), 자연과학계열이 9명(4.8%), 공학계열이 3명(1.6%), 법학계열이 15명(7.9%), 예체능계열이 2명(1.1%), 마지막으로 의, 치, 간호계열이 1명(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특별시가 109명(57.7%), 인천 및 경기도가 62명(32.8%), 대전 및 충청도가 2명(1.1%), 광주 및 전라도가 1명(0.5%), 대구, 부산, 및 경상도가 14명(7.4%), 무응답이 1명(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측정하기 위해, Freeston 등(1994)이 개발하고 최혜경(1997)이 번안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IUS)를 사용하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는 총 27개의 문항으로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미래에 대해서 통제하려는 욕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는 4점 척도(1=*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4=*매우 해당된다*)로 평정하며, 문항의 예로는 "예측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매우 당황한다." 등이 있다. Freeston 등(1994)의 연구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h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최혜경(1997)의 연구에서는 .93, 오영아와 정남운(2011)의 연구에서는 .90, 본 연구에서는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윤석빈(1999)이 개발하고 임전옥(2003)의 연구에서 예비연구를 통해 보완한 정서조절양식체크리스트의 하위요인인 회피분산적양식을 사용하였다. 정

서조절양식체크리스트는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측정하는 도구로, 그 방식으로 능동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 지지추구양식이 있다. 그 중 회피분산적양식 척도는 총 9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거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피분산적 양식 척도는 5점척도(1=*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5=*자주사용한다*)로 평정하며, 문항의 예로는 "관계없는 다른 일을 떠올리거나 다른 일에 집중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피분산적양식 척도만 사용되었으나, 설문의 목적을 숨기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전체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임전옥(2003)의 연구 회피분산적양식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5였으며, 이성민과 김성규(2017)의 연구에서는 .74, 본 연구에서는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지연행동

학업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itken(1982)가 개발한 지연행동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 API)를 박재우(199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지연행동척도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및 학업에 있어서 지연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지연행동척도는 5점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 일을 바로 시작하고 싶지가 않다." 등이 있다. 박재우의 연구에서 지연행동척도의 내적일치도계수가 .82로 나타났으며,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성민과 김정규(2017)의 연구에서는 .80, 사이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현진(2013)의 연구에서는 .8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8.0을 활용하여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모형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 학업지연행동 변인들을 각 변인별로 세 개의 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잠재변인 별로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문항들을 요인 부하량 절대값에 따라 순위를 매겨 가장 큰 부하량을 지닌 문항과 가장 작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을 하나의 짝으로 묶어 순서대로 세 개의 꾸러미에 연속적으로 할당했다. 둘째, 자료가 정규분포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다(Lei & Lomax, 2005). 셋째,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의 Comparative Fit Index(CFI: .90이상 적합), Tucker-Levis Index(TLI: .90이상 적합),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10이하일 경우 적합) 수치들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살펴보았다(Bentler, 1990; Bentler & Bonett, 1980). 넷째, 부트스트랩 절차를 활용하여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방법으로, 모수의 분포를 추정하기 어려울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근사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유의확률을 구하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189)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

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모형이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20에서 39세까지를 저연령집단(n=108), 40세부터 69세까지를 고연령집단(n=81)으로 분할하여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부분구조동일성을 확인하는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연령집단 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 학업지연행동의 측정변인(꾸러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1). 연령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하는 변인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령집단의 경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α=.34, p<001.),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은 학업지연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α=.23, p<.05). 한편, 저연령집단의 경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α=.08, p=.41). 고연령집단의 경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학업지연행동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α=.20, p<.0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회피/분산적 정

표 1.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연령집단 별 측정변인 간 상관

	1	2	3	4	5	6	7	8	9
1. UI꾸러미1		.87***	.83***	.48***	.48***	.32**	17	.21	.16
2. UI꾸러미2	.88***		.85***	.37***	.36**	.17	.20	.25*	.21*
3. UI꾸러미3	.85***	.88***		.38***	.44***	.25*	.07	.13	.16
4. 회피분산꾸러미1	.32***	.33***	.29***		.52***	.57***	.10	.22*	.17
5. 회피분산꾸러미2	.35***	.35***	.33***	.56***		.50***	-.17	-.17	-.05
6. 회피분산꾸러미3	.28***	.25***	.22**	.54***	.46***		-.06	-.06	.11
7. 학업지연꾸러미1	.18*	.18*	.09	.20**	.06	.17*		.78***	.67***
8. 학업지연꾸러미2	.08	.14	.04	.30***	.03	.17*	.70***		.75***
9. 학업지연꾸러미3	.06	.12	.06	.21**	.05	.13	.68***	.76***	
M	2.37	2.43	2.38	3.23	3.27	2.82	2.50	2.63	2.52
SD	0.56	0.54	0.54	0.77	0.80	0.75	0.61	0.65	0.72
왜도	0.25	-0.01	0.04	-0.13	-0.16	0.04	0.32	-0.18	0.02
첨도	-0.25	0.14	0.22	-0.11	-0.15	0.45	0.56	-0.13	0.52

주. 대각선 하단은 저연령집단(n=100), 대각선 상단은 고연령집단(n=89)의 상관계수이다. UI=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회피분산=회피분산적정서조절양식, 학업지연=학업지연행동.

* p < .05. ** p < .01. *** p < .001.

서조절 양식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α=.47, p<.001). 반면,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α=.02, p=.87).

연구 모형의 측정모형 검증 및 구조모형 검증

먼저, 측정모형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24, N=189)=40.266, p=.020; CFI =.99, TLI=.98, RMSEA=.060(90% 신뢰구간=.024-.092). 요인부하량은 .67부터 .96사이에 분포하여 잠재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ps<.001.). 즉, 9개의 측정변인이 3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인 매개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24, N=189)=40.266, p=.020; CFI=.99, TLI=.98, RMSEA=.060(90% 신뢰구간=.024-.092). 그림 2에서와 같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은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은 학업지연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모형이 자료에 적합하기에,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2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189)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즉,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α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간접효과 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은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을 통해 학업지연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8, p <.0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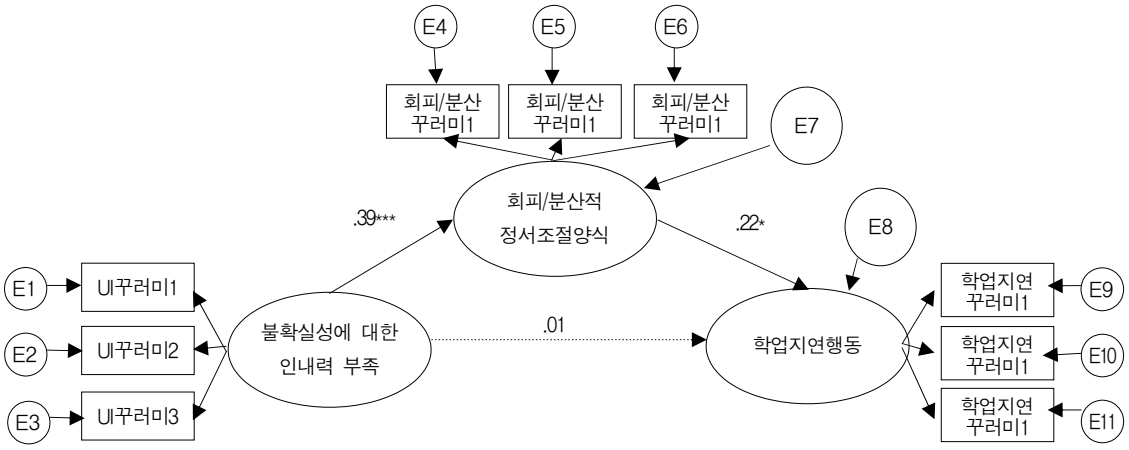


그림 2. 매개모형

* p < .05. *** p < .001.

주. UI=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회피분산=회피분산적정서조절양식, 학업지연=학업지연행동

다집단 분석

본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연구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Box의 동질성 검증 결과, 동질성 검증이 충족되지 않았다, $F(6, 205747.672) = 1.303$, $p<.05$, 따라서 Pillai's Trace값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에 대한 전체 평균값이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 185)=6.870$, $p<.001$, $\eta^{2}_{p}=.11$, 집단에 따른 평균 차이를 변인 별로 확인해보니,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 $F(1, 187)=9.34$, $p<.01$, $\eta^{2}_{p}=.05$, 학업지연행동, $F(3, 185)=14.492$, $p<.001$, $\eta^{2}_{p}=.07$,에서 고연령집단들의 평균이 저연령집단들의 평균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동일성 및 측정동일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령 집단에 따라 연구 모형의 형태가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두 집단을 따로 분석하여, 적합도가 수용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저연령집단(20, 30대), $\chi^2(24, n=108)=30.290$, $p=.046$; CFI =.99, TLI=.98, RMSEA=.059(90% 신뢰구간=.000-.104), 고연령집단(40대 이상), $\chi^2(24, n=81)=51.941$, $p=.001$; CFI =.94, TLI=.91, RMSEA=.099(90% 신뢰구간=.075-.166), 두 집단 모두 모형적합도가 수용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 형태동일성이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두 집단에서 측정변인들이 동일한 잠재변인을 구인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집단에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고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측정동일성이 확인되었다($\Delta\chi^2(6, N=189)=2.573$, $p=.860$). 즉, 본 연구에서 저연령집단(20, 30대)과 고연령집단(40대 이상)에 가정한 측정변인들이 동일한 잠재변인을 구인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구조동일성 검증

구조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에서 경로계수가 모두 같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과 모두 제약을 가하지 않은 자유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3, N=189)=7.845$, $p=.049$, 어느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로를 하나씩 제약한 부분구조동일성 모형을 설정해, 자유모형과 χ^2차이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제약한 모형($\Delta\chi^2(1, N=189)=5.042$, $p=.025$)과 불확실함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제약한 모형($\Delta\chi^2(1, N=189)=4.067$, $p=.044$)이 χ^2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에서 나타난 것처럼, 저연령집단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이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연령집단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연령집단에서는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연령집단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에 따른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적용하여 2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189$)로부터 생성해 신뢰구간 95%에서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저연령집단의 경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이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을 매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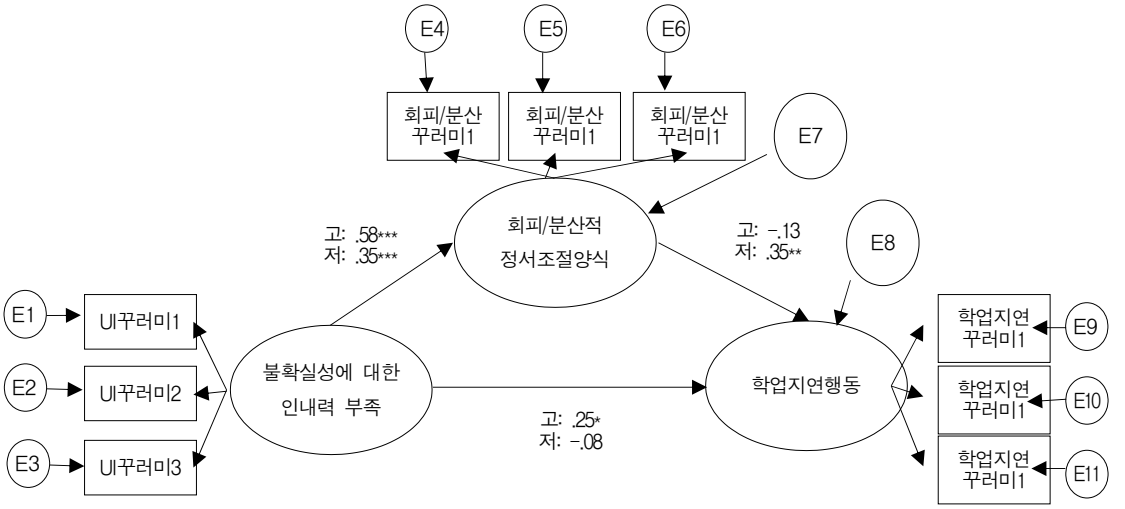


그림 3. 고연령집단(고)과 저연령집단(저)의 경로계수

* $p < .05$. ** $p < .01$. *** $p < .001$.

주. UI=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회피분산=회피분산적정서조절양식, 학업지연=학업지연행동

여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 $p < .01$). 그러나 고연령집단의 경우에는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이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을 매개하여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이 매개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189명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모형의 접합도 및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 변인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살펴보았다. 먼저, 가설모형은 자료에 적합했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은 회피/분산적으로 정서조절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학업에 관련된 활동에서 지연행동을 보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 저연령집단에서는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연령집단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을 통해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 중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회피하고 다른 활동으로 생각을 분산시키는 정서조절 방식을 사용하며, 이러한 정서적 회피는 학업에 관련된 활동에서 지연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의 연구들(Fortounas & Thomas, 2016; Tongie & Ping, 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김이영과 어윤경(2018), 양도선, 이자영(2016)의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학업지연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성민과 김정규(201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경우에도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이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이 학업적으로 지연행동을 보일 때,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변인으로써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의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연령에 따라 변인들의 평균 점수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고연령집단은 저연령집단보다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과 학업지연행동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회피하고 분산적인 정서조절 방법을 덜 사용하며, 학업에서도 지연행동을 덜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Labouvie-Vief(2003)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서조절양식이 적응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일치하는 연구 결과이며, 황치석(2005)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과 이희정(2011)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습성과가 높아지는 것과 유사한 연구결과이다. 한편, Nuevo 등(2007), Basevitz 등(2008)의 연구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수준이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던 것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수준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변화하기 어려운 성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한 오영아, 정남운(2011)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연령에 따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개입이 달라져야함을 시사하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수준은 연령에 관계없이 그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개입이 달라져야함을 시사한다.

셋째, 고연령집단과 저연령집단 모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가설을 지지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윤정미(2019)와 장진이(2016)의 연구, Shao 등(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연령에 관계없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은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을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양경은과 박기환(2014), 오영아와 정남운(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 중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재학생들은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고 이를 분산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에게 대학생활과 학업은 새로운 불확실한 상황일 것이다. 이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은 학업 및 학교생활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하게 되고, 이에 대한 각성 수준이 높아졌을 수 있다. 이러한 정서와 감정에 압도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직접 대면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조절 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저연령집단의 경우에는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이 학업지연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연령집단의 경우에는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가

설을 지지했다. 이는 김민희와 민경환(2004)의 연구, 이주일(2003)의 연구, 이성민과 김정규(201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20대의 저연령집단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은 자신의 정서를 회피하고 분산시키는 전략을 사용할수록 학업에서 지연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40대 이상의 고연령집단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은 이러한 정서의 회피 및 분산 전략이 학업에서의 지연행동과 관련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저연령집단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연령집단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ortounas와 Thomas(2016)과 Tongie와 Ping(2018)의 연구에서 20대 대학생들의 경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상반된 연구 결과인 반면, 중장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정혜윤 외, 2015; de Guzman et al., 2014; Nuevo et al., 2007)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렇게 연령별 집단에 따라서, 변인 간의 관련성이 달라지는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 변인이 연령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 저연령집단에서는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연령집단에서는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이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 중 20에서 30대의 학생들 중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하기 보다는 회피하거나 분산하기 때문에 학업에 있어서 지연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 중 40대 이상의 학생들 중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서조절의 문제가 아닌 다른 심리적 변인들이 매개하여 학업적 지연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하오선과 김수영(2018)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높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은 40대 이상의 나이에 다시 학업을 시작하면서 인지 능력 및 학습 방법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에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증적인 연구들에서도 원격대학 학습자들의 학업지연행동과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학습자들의 학습몰입에 자아효능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진, 최혜라, 2015; 서창수, 2017). 또한, 원격 및 평생교육 단과대학 성인학습자들은 아니지만, 20대 후반 이상의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의 경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경우 진로를 탐색하는 것에 대한 효능감이 낮으며, 따라서 진로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황진아, 김은하, 2016). 종합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고연령집단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경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학습 또는 학업에 관련된 문제를 수행하는데 자신감이 떨어질 것이고, 이는 학업 관련 활동에서 지연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 학업에 관련된 자기 효능감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선행 연구 및 관련 이론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학업지연행동에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 수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는데 의의를 지닌다. 특히,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

학생들의 학업지연행동에 성격적인 변인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추후 이들의 학업지연행동에 연구할 때, 이러한 성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연령에 따라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연령집단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연령집단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직접 효과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연구에서 이들의 학업지연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라 다른 매개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상담 실제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 저연령집단의 경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을 매개하여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고연령집단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에 따라서 학업지연행동을 보이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상담접근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저연령집단의 경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들을 회피하거나 이를 분산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정서적 경험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김정은과 손정락(2012)의 연구에 따르면, 수용전념치료(ACT)프로그램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경험 회피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전념치료란 심리적 어려움과 고통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거나 통제하려했을 때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는 행동치료이론 중 하나이다(Hayes et al., 2006). 즉, 수용하고 맥락으로서의 자기를 이해하고, 현재에 존재하는 등 여러 수용전념치료의 핵심 치료과정들은(Hayes et al., 2009),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 중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저연령집단의 재학생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들을 회피하고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 중 학업지연행동을 보이는 40세 이상의 재학생들의 경우, 이들 중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학업적 도움을 주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만, 학점을 두고 경쟁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하오선, 2019).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40세 이상의 재학생들은 이러한 경쟁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학업에 집중하기 보다는, 성적, 평가, 경쟁 등 불확실한 상황과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예상하는데 몰두할 수 있다(오서진, 오경자, 2011; 조용래, 2008). 따라서 상담자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40세 이상의 재학생들을 만났을 때, 불확실성에 대해 해석하는 내담자의 방략을 내담자가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유발될 수 있음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불확실성에 몰두하게 되어 학업의 과정에서 학습활동에 관련 없는 당면 학습 활동에 관련 없는 정보들을 유입시킬 수 있다(예, 학습활동에 정답을 쓰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서은희, 2007; Baddeley,

1999).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간섭적 사고들에 대해서 성찰하고, 이것이 기인하고 있는 자신의 성격적 기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총 189명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3개의 잠재변인, 9개의 측정변인을 포함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로 가설을 검증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추정 모수 당 최소 5배 이상의 표본 크기를 제안했으나(Baumgartner & Homburg, 1996; Bentler & Chou, 1987), 현재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전국의 15개에 불과하며,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여 피로도가 높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를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것에 맞춰 모집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 중 인문사회계열 전공 재학생들이 대다수인 점, 전체 참여자 중 169명(89.4%)이 하나의 대학에서 모집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인문사회계열 대학생과 공학계열 대학생들이 학습에 관련된 피드백, 학습활동 등에 만족하는 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신현숙, 정혜경, 2019), 추후 연구에서는 공학 또는 자연과학 계열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경험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재 15개의 대학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다양한 대학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인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학업지연행동척도(API)를 사용하여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학업지연행동의 수준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은 대다수가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업은 단순히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생업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을 반영해서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넷째,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 중의 하나로 선수 학습 또는 학업관련 경험이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경우 선수 학습 또는 학업 관련 내용에 대한 경험이 있을수록 학업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창수, 2017). 즉, 이러한 교육 경험에 대한 차이는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수학습 수준 및 교육 관련 경험들을 조사하여 통제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대다수가 재직자이기에, 이들이 경험하는 업무에 관련된 스트레스, 업무 강도 등 업무나 직업에 관련된 변인들을 조사하여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업무와의 병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어려움을 반영하여 변인들 간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민희, 민경환 (2004). 노년기 정서경험과 정서조절의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21.

김슬기, 박은영 (2018).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 수치심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

리학회지: 학교, 15(3), 287-306.

김이영, 어윤경 (2018). 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업몰입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의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6(4), 151-183.

김정은, 손정락 (2012). 수용전념치료가 평가염려 완벽주의적 대학생들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경험 회피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3), 749-771.

김종운, 양민정 (2013).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우울이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1(2), 247-265.

김현이, 송미경 (2018).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양식의 매개효과. 정서, 행동장애 연구, 34(4), 316-336.

김현진 (2013). 사이버 대학생의 환경적 학업방해 요소 및 완벽주의와 학업지연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교육심리연구, 27(3), 555-573.

김현진, 전종희 (2014).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업지연행동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성취목표지향성의 관계 분석. 평생학습사회, 10(2), 209-228.

김현진, 최혜라 (2015). 사이버대 학생을 위한 한국판 비합리적 지연 척도 타당화. 평생학습사회, 11(3), 85-109.

김현홍, 김진강 (2019).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업성취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환대산업 관련 전공을 하는 지방대학생들을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4*(2), 103-126.

김 환, 이훈진 (2007). 경험적 회피(Experiential Avoidance)와 회피적 반응의 관계 = 행동적 회피, 감추기 및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225-243.

박재우 (1998). 과제의 자아 위협도와 완벽주의가 과제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박해준, 안도희 (2018). 대학생의 자기조절, 시간관리, 학업 스트레스 및 학업 지연행동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2), 867-891.

서은희 (2007). 지연행동가들의 불안수준에 따른 자기조절학습의 차이. 교육심리연구, 21(3), 613-626.

서창수 (2017). 평생교육단과대학 학습자의 학습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 한국직업교육연구, 36(6), 1-25.

손승남 (2015).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과 과제. 교양교육연구, 9(3), 71-96.

신수진, 홍혜영 (2014).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1(4), 95-116.

신현숙, 정혜경 (2019).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과 학업만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0(5), 1087-1102.

안미소, 김혜리 (2017). 정서경험 빈도와 정서조절 방향에 나타난 한국 노인의 정서최적화 특징. 한국노년학, 37(1), 201-219.

양도선, 이자영 (2016). 사이버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교육방법연구, 28(3), 421-441.

오서진, 오경자 (2011). 불안이 외현기억 편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1), 39-54.

오영아, 정남운 (201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걱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71-691.

유 경, 민경환 (2005). 연령증가에 따른 정서최적화 특성의 변화. 한국노년학, 25(2), 221-227.

유상현, 변상해 (2018). 중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우울,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6), 251-266.

유지원 (2012). 이러닝 수업에서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자기조절학습, 두려움, 학업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학업통제감 간의 관계.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8(3), 249-271.

윤석빈 (1999).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선행사건에 따른 정서조절양식이 차이.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윤숙경 (1996). 완벽성향과 자기개념에 따른 대학생의 지연 특성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윤정미 (2019).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경험회피의 순차적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차의과학대학원 대학교.

윤채영, 이은화 (2017). 대학생이 지각한 학업지연행동과 충동성, 학습전략,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25(4), 151-170.

이경민, 김병주 (2017). 신문기사에 나타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의 갈등 전개과정 및 쟁점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4(3), 1-26.

이성민, 김정규 (2017).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8), 83-104.

이예지, 조한익 (2019).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강박적 확인행동의 관계: 불완전감과 특질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12), 1-29.

이주일 (2003). 조직 장면에서의 분노, 불안, 우울 정서-정서 간 유발 상황과 대처방식의 차이 및 정서의 조절과 심리적 안녕, 직무효과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6(3), 19-58.

이현경, 이지연 (2017). 대학 평생학습자 대상 플립러닝 교수학습 모형 탐색 -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3(6), 157-182.

이희정 (2011).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참여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9(2), 67-108.

임전옥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장진이 (2016).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험회피, 정서조절 어려움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7(2), 121-139.

전보라, 정혜영, 윤소정 (2016). 전문대학생의 생애목표와 성취목표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2(6), 313-334.

정혜윤, 진영선, 장문선 (2015). 불안성향 노인의 정서인식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3), 91-113.

조용래 (2008). 시험불안에서 상위인지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709-727.

조이슬, 강영신 (2015).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불안민감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4), 359-375.

최혜경 (1997). 만성적 근심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역기능적 효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하오선 (2019). 평생교육 단과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장애 요인 탐색과 학업중단의사에 따른

인식 차이: D대학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7), 39-56.

하오선, 김수영 (2018).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습자의 학습실태 및 강의에 대한 인식: D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6(4), 121-149.

한영숙 (2011).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4), 277-299.

황진아, 김은하 (2016). 상담 전공 석사생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적응성간의 관계: 자기성찰을 통한 진로탐색효능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7(6), 289-312.

황치석 (2005). 성인학위학습자의 만족도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학점은행제 성인학습자를 중심으로. 평생교육·HRD연구, 1(1), 95-112.

Aitken, M. E. (1982). *A personality profile of the college student procrastinat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Baddeley, A. (1999). *Essentials of human memory*. East Sussex, England: Psychology Press.

Basevitz, P., Pushkar, D., Chaikelson, J., Conway, M., & Dalton, C. (2008). Age-related differences in worry and related process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66*(4), 283-305.

Baumgartner, H., & Homburg, C. (1996).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marketing and consumer research: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13*(2), 139-161.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600.

Bentler, P. M., & C. Chou. (1987).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16*(Aug), 78-117.

Bögels, S. M., & Mansell, W. (2004). Attention processes in the maintenance and treatment of social phobia: hypervigilance, avoidance and self-focused atten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7), 827-856.

Brummer, L., Stopa, L., & Bucks, R. (2014). The influence of age on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42*(6), 668-681.

Burka, J. B., & Yuen, L. M. (2008). *Procrastination: Why you do it, what to do about it now* (2nd Ed.). Cambridge, MA: Da Capo Life-long Books.

Charles, S. T., Reynolds, C. A., & Gatz, M. (2001). Age-related differences and change i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over 23 yea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1), 136-151.

Clariana, M., Gotzens, C., Badia, M. del M., & Cladellas, R. (2012). Procrastination and cheating from secondary school to university. *Electronic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al Psychology, 10*(2), 737-754.

Doerwald, F., Scheibe, S., Zacher, H., & Van Yperen, N. W. (2016). Emotional competencies across adulthood: State of knowledge and implications for the work context. *Work, Aging and Retirement, 2*(2), 159-216.

Dugas, M. J., Buhr, K., & Ladouceur, R. (2004a). The role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in etiology and maintenance. In: R. G. Heimberg, C. L. Turk, & D. S. Mennin (Eds.),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pp. 143-163). New York: Guilford.

Dugas, M. J., Gosselin, P., & Ladouceur, R. (2001).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worry: Investigating specificity in a nonclinical samp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5), 551-558.

Ferrari, J. R. (2001). Procrastination as self-regulation failure of performance: Effects of cognitive load, self-awareness, and time limits on "working best under pressur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5), 391-406.

Fetzner, M. G., Horswill, S. C., Boelen, P. A., & Carleton, R. N. (2013).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PTSD Symptoms: Exploring the construct relationship in a community sample with a heterogeneous trauma histo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7*(4), 725-734.

Fourtounas, A., & Thomas, S. J. (2016). Cognitive factors predicting checking, procrastination and other maladaptive behaviours: Prospective versus inhibitory intolerance of uncertainty. *Journal of Obsessive-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s, 9*, 30-35.

Freeston, M. H., Rhéaume, J., Letarte, H., Dugas, M. J., & Ladouceur, R. (2004). Why do people worry? *Personality and Individaul Differences, 17*, 791-802.

Guzman, A. B. de, Lacao, R. A., & Larracas, C. (2015).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the factors affecting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worry among a select group of Filipino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41*(2), 106-119.

Hayes, S. C., Lillis, J., Bunting, K., Herbst, S. A., & Fletcher, L. B. (2009). The 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flexibility and mental health stigma i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 preliminary process investigation. *Behavior and Social Issues, 18*, 1-16.

Hayes, S. C., Luoma, J. B., Bond, F. W., Masuda, A., & Lillis, J. (2006).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odel, processes and outcom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1), 1-25.

Labouvie-Vief, G. (2003). Dynamic Integration: Affect, Cognition, and the Self in Adulthood.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6), 201-206.

Labouvie-Vief, G., DeVoe, M., & Bulka, D. (1989). Speaking about feelings: Conceptions of emotion across the life span. *Psychology and Aging, 4*(4), 425-437.

Lei, M., & Lomax, R. G. (2005). The Effect of Varying Degrees of Nonnormality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2*(1), 1-27.

McCown, W., & Johnson, J. (1991). Personality and chronic procrastination by students during an academic examination peri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5), 413-415.

Nuevo, R., Wetherell, J. L., Montorio, I., Ruiz, M. A., & Cabrera, I. (2009). Knowledge about aging and worry in older adults: Testing the mediating role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ging & Mental Health, 13*(1), 135-141.

Oglesby, M. E., Medley, A. N., Norr, A. M., Capron, D. W., & Schmidt, K. N. B. (2013). Intolerance of uncertainty as a vulnerability factor for hoarding behavio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45*(2), 227-231.

Rosen, N. O., & Knäuper, B. (2009). A little uncertainty goes a long way: State and trait differences in uncertainty interact to increase information seeking but also increase worry.

Health Communication, 24(3), 228-238.

Russell, D., Kahn, J., Spoth, R., & Altmaier, E.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Shao, J., Yang, H., Lei, X., Li, J., & Zhang, Q. (2019). The Shackles of fear: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how fear of aging may increase older adults' vulnerability to fraud. *Clinical Gerontologist, 11*, 1-10.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Solomon, L. J., &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03-509.

Tongjie, X. U., & Ping, H. U. (2018). A serial mediation model between inolerance of uncertaint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Renmin University of China Education Journal*. http://en.cnki.com.cn/Article_en/CJFDTotal-RDXK201801009.htm.

원고 접수일 : 2020. 02. 18.
수정원고 접수일 : 2020. 04. 13.
게재 결정일 : 2020. 04. 17.

상담학연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20, Vol. 21, No. 2, 147-169

The Relationship between Intolerance for Uncertaint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among Lifelong Educatio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on Role of Avoidance-Distractive Emotion Regulation and Multi-group Analysis by Age Group

Keun-young Baek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among lifelong Education College students. Based on previous research,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with the mediation effect of avoidance-distractive emotion regulation by analyzing responses from 189 students in Life Education Colleges. A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was also performed sequentially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ag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ediation effect of avoidance-distractive emotion regulation pattern on the link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was significant. Second, the significance of individual path coefficient differed by age group. In the younger age group, the relationship between intolerance for uncertaint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was completely mediated by avoidance-distractive emotion regulation pattern. In the older age group, it was appeared that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affected directly avoidance-distractive emotion regulation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voidance-distractive emotion regulation pattern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was not significant. Implications of the present findings for future research and counseling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olerance of Uncertainty, Academic Procrastination, Avoidance-Distractive Emotion Regulation, Lifelong Education College, Multi-group Analysis